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2009년 교회표어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 일 낮 예 배 순 서

【성령강림절 후 제8주】

전 주	반주자
임재의 기원	오소서, 평화의 임금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경배의 찬송 42(통11). 거룩한 주님께 다함께

♠ 공동기도 다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어둠이 비록 강하나 빛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둠이 승한 것 같으나 그 어둠은 영존할 수 없고 잠시잠간 해를 가리는 구경꺼리에 지나지 않음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믿음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진리와 정의의 햇살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어두운 인생길도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속히 여명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십시오.

주님, 아픔과 눈물이 끊이지 않는 이 사회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법을 논의하는 신성한 자리는 폭력이 난무하는 곳이 되었고 내일의 꿈을 꾸는 일터는 생존을 위한 싸움터가 되어버렸습니다. 주님, 주체할 수 없는 아픔 속에서 흐느껴 울고 있는 이들을 돌아봐주십시오. 주님께서 친히 위로해주시고 새로운 희망이 되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다함께

♠ 위로의 말씀 마5:3,4 인도자

♠ 교 독 문 61. 시편 142편 다함께

♠ 영 광 송 1. 만복의 근원 다함께

대표기도 I. 장성호 선생 II. 윤석철 장로

응 답 송 찬양대

찬 양 405(통458).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다함께

성경봉독 I. 시10편 서상현 학생

..... II. 눅 8:4-8 박성실 권사

찬 양 찬양대

말 씬 I. 말씀이 있기 전에 이성운전도사

..... II. 그래도 나는 씨를 뿌린다 김기석 목사

거둠기도 다함께

찬 송 연주 (바이올린) 홍지희

♠ 봉 헌 317(통353). 내 주 예수 주신 은혜(1,5) 다함께

♠ 봉헌 및 목회기도 인도자

공동체 소식 인도자

♠ 평화의 인사 다함께

♠ 보냄의 말씀 다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믿음과 희망과 사랑의 씨를 뿌리며 사십시오. 거친 땅을 불평하지 마십시오. 땅을 갈아엎을 힘을 간구하며 사십시오.

다 함 께 : 아멘. 작은 시련과 유혹 앞에서도 쉽게 흔들리던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어려움이 찾아올수록 주님께서 맡기신 하늘의 씨앗들을 생각하겠습니다. 마음의 심지를 굳게 하고 하루하루 선한 일을 행하겠습니다. 무덤고 힘들수록 결실의 기쁨을 생각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동행이 되어주십시오. 아멘.

♠ 찬 양 635. 주의 기도 다함께

♠ 축 복 담임목사

☀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신약 성서 맥잡기 / 김기석 목사	말씀 : 구학관 목사
기도 : 홍순구 권사	기도 : 유경순 권사

다음 주 예 배 위 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재흥 목사 김기석 목사	곽권희 권사 방문성 장로	인도자 백혜숙 권사

7월	영접위원	방문성 박병구 임주빈 박혜경 최현옥 김정애
	헌금위원	김인걸 박성실 (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기만적인 가설들

프로파간다(선동)는 기만과 현혹이라는 빙산의 일각이다. 다른 나라들이나, 혹은 불만을 품은 내부 비판자들은 그것을 쉽게 적발하고 폭로할 수 있다. 프로파간다는 임시방편이다. 즉 그것은 단기적 필요에 대응한다. 그것은 각각의 상황에 맞도록 변경된다. 그러나 그 기본적인 기만체제는 약 5천년 전에 지배체제가 등장한 이후 별로 바뀌지 않았다. 그 기만체제는 선동보다도 훨씬 더 깊이에 있는 대체로 검토되지 않은 일련의 가설들 위에 수많은 인간들을 노예로 잡아두는 일에 성공해 왔다. 이들 기만의 가설들은 골로새서에서 “세상의 초등학문”, “세속의 원리”, “세상의 유지한 원리” 등으로 번역된 stoicheia tou kosmou, 즉 “지배체제의 근본적인 가설들”이라고 부른 것들이다. 이 모든 가설들이 모든 나라 모든 시대에 통하는 것은 아니며, 더러는 단지 어떤 나라의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통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기만의 게임이 행하여온 지난 5천 년에 걸쳐, 이들 가설들은 그 스스로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여기 몇 가지만 아래에 들어보자.

- * 사회를 통제하고 무질서를 막기 위해서는 일부가 다른 사람들을 지배할 필요가 있다.
- * 지배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자신들의 목표를 성취하는 수단으로 삼는다.
- *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천성적으로 지배하도록 되어있고, 어떤 인종은 다른 사람을 지배하기에 적합하도록 태어났다.
- * 가치 있는 결과는 모든 수단을 정당화한다.
- * 폭력은 다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데, 즉 원수들이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언어다.
- * 통치와 관리는 모든 사회적 기능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 * 그러므로 통치자나 관리자는 별도의 특권과 모든 종류의 특별한 부요함(재물)으로 보상 받아야한다.
- * 군사력을 가진 자들, 가장 발전된 기술을 통제하는 사람들, 가장 큰 재산을 소유한 사람들, 혹은 가장 큰 시장을 점유한 자들은 당연히 살아남아야 할 사람들이다.
- * 돈이 가장 중요한 가치다.

- * 돈을 소유하는 것이 정치 사회적인 값어치의 표지요 증거다.
- * 물질적 상품을 생산하는 것이 건강한 보통의 사람들과 건전한 인간관계를 생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혹은 전자가 자동적으로 후자를 만들어 낸다.)
- * 재산은 거룩한 것이며, 재산 소유권은 절대적 권리다.
- * 조직이나 국가에서 규모가 크다는 것은 권세와 가치의 증거다.
- * 조직이나 기관이 사람들보다 더 중요하다.
- * 국가보다 더 높은 가치, 존재, 그리고 권세는 없다. 만일 하느님이 존재한다면, 하느님은 국가의 보호자요 후원자다.
- * 만일 하느님이 존재한다면, 하느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고, 다만 선택된 소수의 개인들이나, 국가나, 국가의 통치자들과 제사장들에게만 나타난다.

이런 가설들은 갈등관계에 있는 양편 모두가 지닌 것이다. 즉 그것들은 파르티아 사람들에게도 로마 사람들에게도 진실이며, 소련 사람에게도 미국 사람에게도 해당된다. 선동은 나라들은 분열시킨다. 그러나 기만적인 가설들은 상호간 적대관계의 지배를 추구하는 데서는 그들을 한 통속이 되게 한다. …… 사회화는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문제는 사람이 어느 것 속으로 사회화되는가 하는 점이다. 사회화의 어떤 요소들은 보편적이어서, 모든 사회들과 사람들이 다들 갖고 있는데, 즉, 공간, 시간, 숫자, 계량, 인과관계, 계층분류 등이 그런 것들이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전통을 수동적으로 받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그들의 사회화를 통해 전통을 물려받기도 하지만, 자기들이 싫어하는 것을 남겨두면서 그것을 넘겨주기도 한다. 그러나 그런 자유는 고도로 제한된 공간 안에서만 행사되어, 기만적인 가설들이 무의식적으로 남아 있는 한 그 가설들을 벗어나기란 매우 어렵다.

기독교인들은 유순하게도 자기들의 정부 편을 들어서,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다른 편을 지원하는 수백만의 다른 기독교인들을 학살하는 것을 정당화하고, 이렇게 하여 양편이 모두 죽음의 왕국의 가치를 위해 공헌하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는다. 정치적 선거란 어느 편이 더 큰 사랑을 베풀 수 있을까 하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더 기만적인 가설들(증대된 군사비 예산, 더 많은 감옥들, 범죄들을 더 엄격히 처벌 등등)에 충실할 수 있는가를 경쟁한다. 교회가 해야 할 과제들 가운데, 이런 기만적 가설들이야말로 용(龍)이 벌이는 게임이라고 폭로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은 없다.

달 밤

낙동강 빈 나루에 달빛이 푸릅니다
무엔지 그리운 밤 지향 없이 가고파서
흐르는 금빛 노을에 배를 맡겨 봅니다
낮익은 풍경이되 달 아래 고쳐 보니
돌아온 기약 없는 먼 길이나 온 듯
뒤지는 들과 산들이 돌아 돌아 뵙니다
아득히 드림 속에 정화된 초가집들
할머니 조용전에 잠들던 그 날 밤도
할버진 울 지으시고 달이 밝았더니다
미움도 더러움도 아름다운 사랑으로
온 세상 쉬는 숨결 한 갈래로 맑습니다
차라리 외로울 망정 이 밤 더디 해소서

- 이호우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홍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손성현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원로장로 :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장로 : 조병무 한완식 윤석철 방문성 한상의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최미선	
차량 및 교회 관리 : 오진훈	도서관장 : 박혜경	

◇ 헌금영수기 ◇

십일조헌금:

박옥식 김춘려 김근종 김윤수 박상호 김준호 곽혜자 김혜권 김정애
박병구 박영희 손성현 오자영 정복순 허호범 박성실 박효선 이성운

월정헌금:

권 순 윤정화 박준희 이기분 이정은 하현철 최성애 배부례 정완수
김재광 김영순 황의일

감사헌금:

양재성 박용진 김용원 하재두 전세종 김정민 전성오 김정애 김 극
조현권 박아영 권미숙 고유비 강순배 무명5

녹색꿈 헌금:

김남홍 무명2

속명	인도자	속장	모인곳	다음장소
예루살렘	장혜숙	박성실	심	심
베들레헬	노순옥	정경례		
안디옥	임정자	임정자		
가나안	문영혜	이명희		
갈릴리	안정숙	진정숙		
베다니	박홍재	곽권희		
시온	박효선	허정운		
엠마오	최숙화	권미정		
에베소	이순정	김금순		
빌립보	이형숙	권미숙		
가버나움	안홍숙	오현정		
나사렛	정영선	백혜숙		
갈라디아	유경순	김명희		
고린도	이영란	이영란		
다메섹	박혜경	최영혜		

■ 교/회/소/식 /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성령강림절기** : 교회력으로 성령강림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소통하고 살리는 영입니다. 성령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2. **교회학교수련회** : 아동부 캠프가 오늘부터 수요일(29일)까지 흥천에 있는 은현수련원에서 열립니다. 중고등부 수련회는 금요일(31일)부터 다음 주일(1일)까지 인제에 있는 원대교회에서 열립니다.
3. **수요집회** : 이번 주 수요집회 때 구학관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4. **신앙실천** : 계속되는 장마와 무더위로 마음이 무겁고 지치기 쉽습니다. 더욱 기도에 힘쓰며 사십시오.

* 식당 봉사 : 베들레헴 속 (다음 주 : 베들레헴 속)

* 설거지 봉사 : 이준하 오재환 (다음 주 : 김기성 이은정)

< 교회학교 여름행사 안내 >

- 유치부 성경학교 : 7월 25일 ~ 26일, 교회
- 아동부 여름 캠프 : 7월 26일 ~ 29일, 흥천 은현수련원
-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 : 7월 31일 ~ 8월 2일, 인제 원대교회
- 청년부 여름 농활 : 8월 6일~9일, 천안 단비교회

새교우 소개

김윤숙 (4여선교회)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 육 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 년 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